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지방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산품 개발

사를 보냈다.

특히 돋보이고 있는 것은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22개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야산이 많아 개간해 밭이 많은데 밭작물로 고구마 재배를 많이 하며 연중 배추를 재배해 배추를 소금으로 간해 절간해 국내 수용가에 배송하고 있으며 김치를 만드는 안내와 실전을 하고 있다. 특히 남쪽 지방으로 밭이 많은 화원면 일대에서는 배추재배를 많이 해 김치 공장을 만들어 김치 생산을 하고 있으며, 김치가 세계적인 으뜸 식품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대규모 김치 공장 설립을 해남에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일촌일품(一村一品)의 상품으로 해남의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가 세계 식품 시장에 수출돼 먹게 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며 지역 상품 개발에 서광이 비친다.

해남군의 산이면 일대 해변에는 수만 평의 모래밭이 있으며 땅속을 파보면 양질의 모래인 규사가 나오고 있어 이곳에 유리 공장을 설립하면 유리 원료가 풍부해 태양광발전의 모듈 생산 원료로 활용하는 여론이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해남에 전국 최대규모의 유리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 보인다.

야산이 많은 나주시와 영암군은 야산을 개발해 과수원으로 조성해 우량의 배를 생산해 수출하

고 있으며 영암 삼호면 일대에서 는 무화과를 재배해서 9~10월 특산품으로 출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한반도에 있어 바다에 접한 해안선이 많으며 특히 서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들이 많고 바다가 얇은 대륙붕 지역의 바다가 넓으며, 남해안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어족이 풍부하며,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하고 고기떼가 모여든다. 이러한 바다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생산소득원으로 이용해 농어촌 지방소득을 높이고 있다.

바다를 이용하는 데서 개발하고 활용하며 잡는 어업에서 양식하는 어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바다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소득을 올리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바다의 여건을 가장 잘 이용해 선진화 자립의 길을 가고 있는 지자체가 신안군과 완도군이다.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양됐지만, 전남도와 각 시·군은 국가 계양대에 새마을기를 계양하고 '남보다 더 일해 더 잘사는 선진국을 만들자'는 뉴 새마을 운동의 꿈을 품고 노력해 창의적인 노력은 지역특산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양식해 채취하는 미역 김 다시마의 해조류 특산품과 전복을 비롯한 어패류도 양질의 지역특산품으로 새롭게 개발해 국제화 시대에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세계 각국의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작물 재배로 한라봉을 비롯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해 우량 농산물로 출하하고 있다.

민주화의 시대에 지방자치는 민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창의력을 계발하고 이것이 지방 소득을 올리는 지역 특산품 개발로 연결돼 지방소득을 높여 빛이 없는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역기능은 민선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잘못해 빛을 지고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단체장들이었는데 전라남도 시·군은 빛을 갖는 데 노력해 빛이 없는 시·군이 대부분이었다.

정보화 시대에 소득을 올리는 좋은 정보를 남보다 먼저 접수해 지역 특색에 알맞게 실천하는 시·군이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가게 된다. 고기떼가 몰려온다는 정보를 알았으면, 빛을 내서라도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어선과 그물 등의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고기를 많이 잡아서 빛을 값으면 된다. 국제화 시대, 정보화시대에 민선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좋은 정보를 남보다 먼저 받아들여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특산품 개발에 노력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면서 전국이 17개의 자치 행정 구역으로 났고 그 밑에 시·군·구의 자치단체가 있어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 행정을 펴고 있다. 필자는 민선 7기 단체장의 3년 실적을 발표하는데 참석해 단체장들의 역량과 공적을 살펴보고,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보 담당과 경제 담당을 만나 상담하며 지역 실정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단체장들이 새마을 정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득을 높이는 창의적 노력과 공적을 세우고 있는데 찬

사설

모두를 위한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됐고 국민의힘도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책임자임을 주장한다. 후보들의 지지율은 작은 이슈 하나, 말실수 하나에도 오르락내리락 한다.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뽑는 큰 축제인 까닭에 각 지지자들의 환호와 한숨으로 소란이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왜 시끄러워요? 정치인 아저씨들은 왜 맨날 싸워요?" 세월이 지나도 반복해 듣는 아이들의 질문이다. 질문을 들 때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고 답해 주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담아내야 하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이해할리 만무하다.

정치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구성원이 한방향을 목소리를 내면 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 것일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반대 없이 일치할 수 있을까. 저항이 없는 권력은 독재와 다르지 않다. 각 진영의 시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 저항의 뜻을 펼친다. 추운겨울과 무더운 날씨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반대 기조를 극복하고자 연정을 구상했다. 지금까지 정권을 교체해도 여소야대면 힘들었고, 여대야소로 패권을 쥐어도 오래가지 않거나 혹은 내부 분열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그런 현실 속에 지지층의 바람과 자신의 소신을 옹골게 구현하지도 못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겪는 일이었으며 그도 그러했다. 노무현의 연정은 이런 고민 속에 구상됐다. 대통령이 반대 층의 정책기조를 알아서 반영하는 것보다 여야 양측이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연정의 핵심이었다.

코로나19라는 환란이 초래한 대전환의 물결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게 '생존'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생존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낡은 진영논리는 밝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는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치는 필수며, 때로는 권력도 나누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분화된 한국정치의 탈출구를 권력을 나누는 연정에서 찾으려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대립과 갈등은 이제 멈춰야 한다. 연정에 대한 진지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견제와 대립을 통한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통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모두를 위한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

함께라 광주시민, 함께라 광주경제

마스크 외출자제 손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

전남도민일보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구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연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 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